

Whitney Houston의 'Greatest Love of All' 가창분석에 관한 연구

원재웅*
*관동대학교 음악학과
e-mail: wjwoong@hanmail.net

The Study on the Analysis for 'Greatest Love of All' of Whitney Houston

Jaewoong Won*
*Dept of Music, Kwando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R&B 발라드 Whitney Houston의 'Greatest Love of All'의 가창에 있어서 효율적인 가창을 위한 표현방법들과 가창지도법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1. 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 R&B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흑인 디바 중 빼놓을 수 없는 가수는 Whitney Houston이다. 그녀의 본명은 Whitney Elizabeth Houston로서 1985년에 데뷔, 뛰어난 가창력으로 큰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팝 여가수이다. 그녀는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 셀린 디온(Celine Dion) 등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여가수 중 한명이었고, 음악적으로는 Pop, R&B, Soul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으며, 뛰어난 발성의 고음과 중음, 그리고 가스펠에 기초를 둔 표현 기법을 통해 팝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가수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의 데뷔앨범 「Whitney」(1985)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기록한다. 'Saving All My Love For You', 'How Will I Know', 'Greatest Love Of All' 등의 히트곡은 연속으로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고 앨범은 8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10장의 앨범 중 한 장이 된다.

'I Wanna Dance With Somebody', 'Didn't We Almost Have It All', 'So Emotional', 'Where Do Broken Heart Go' 등 4곡의 빌보드 넘버원 곡을 담고 있는 2집 앨범 「Whitney Houston」(1987)과

'I'm Your Baby Tonight', 'All The Man That I Need' 등의 히트곡을 담은 3집 앨범 「I'm Your Baby Tonight」(1990)을 발표하면서 정상의 자리를 이어간다. 그리고 영화 [보디가드]의 사운드트랙 「Bodyguard」(1992)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주제가곡 'I Will Always Love You'는 그녀의 최고 히트곡이자 빌보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1992년 당시 집계) 1위에 머무는 기록을 남겼다.

Whitney Houston이 데뷔한 지 30년이 가까워지지만 그녀의 노래들은 지금도 많은 팝 보컬리스트들에게 교본으로 여겨진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스타일이 Christina Aguilera, Beyonce, Alicia Keys, Jennifer Hudson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Hiphop / R&B 등 흑인음악이 오랜 기간 동안 대세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에 있어서도 Whitney Houston의 가창 스타일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수많은 여가수들이 그녀의 가창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노래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녀의 많은 노래 중 데뷔앨범 수록곡 'Greatest Love Of All'은 대표적인 Pop-R&B 발라드 연습곡

이다. 이곡의 가창법을 분석 연구해 봄으로 효과적인 가창지도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론

Greatest Love Of All 가창 분석

Whitney Houston의 'Greatest Love of All'은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팝 재즈 싱어 George Benson의 원곡 'The Greatest Love Of All'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George Benson의 전성기 실황 라이브인 「Weekend in L.A.」에 수록되어 있는 'The Greatest Love Of All'은 George Benson의 소울풀한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어우러지는 곡이다. George Benson의 차분하면서도 여운있는 원곡을 Whitney Houston은 파워풀하면서도 진한 감성을 담아 표현했다.

곡의 형식을 보면 도입부 Verse A(8마디)와 A'(6마디), 전개부 Traditional Bridge B(6마디), 후렴 Chorus C(14마디)로 나눌 수 있다. 이 곡의 멜로디는 전반적으로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좋은 발성과 명확한 발음으로 표현해야만 이 곡이 가진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으며, 각 섹션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음의 톤을 잘 만들어내고 유지해야만 한다.

2.1 도입부 Verse A - A'

도입부 14마디는 A 8마디와 A' 6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도입부 14마디의 멜로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A (4+4) 와 A'(4+2) 로 나눠 볼 수 있다. A의 멜로디와 A'의 멜로디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16분음표 위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리듬에 맞추어 당기고 밀어서 강세를 이동시켜 가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A의 전반 2마디에서는 1마디의 'chil-'과 2마디의 'let' 음절에서 1/4박 당겨서 강세를 표현해야 한다. 또한 A의 5마디에서는 'of' 음절을 1/4박자 당겨서 강박을 표현해야하고, 6마디에서는 'let' 음절을 1/2박자 밀어서 강박을 표현해야한다. A'에서도 10마디의 'one' 음절을 1/4박 당겨서 강세를 표현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강세가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도입부인 만큼 미세한 조절을 통해 강약을 표현해야 한다. 자칫 강세의 표현이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의 전반부 2마디에서 중심이 되는 음은 C#4이며, 그 다음 2마디에서 중심이 되는 음은 F#4이다. 이 구간에서 같은 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주해야 하는데, 프레이즈의 첫 음절인 'I'와 'show'에서 각각 처음 만들어진 음색을 잘 유지하면서도 벤딩기법과 강세구분을 통해 단조롭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

도입부 멜로디 중에서 총 6회의 6도 도약 또는 하강이 나오는데 A3에서 F#4로의 도약 또는 하강이다. 도약과 하강 모두 Chest Voice를 유지해야하는 Range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므로 도약시에는 최대한 목을 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하강시에는 최대한 힘을 풀며 호흡의 양을 조절해야만 급격한 톤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게 된다.

이곡의 도입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호흡처리이다. Whitney Houston은 이곡에서 마치 호흡의 교분과도 같이 들숨inspiration과 날숨expiration을 조절한다.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은대로 넓으면 넓은대로 자연스럽게 들숨을 마시는 호흡법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전통적인 호흡법이다. 그러나 획일적인 패턴의 짧고 강한 들숨을 마시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호흡법을 최근 상당히 많은 대중가수의 노래에서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기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들숨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자연스러운 흥복식 호흡을 익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

Whitney Houston이 날숨을 조절하는 표현도 도입부에서 들을 수 있는데, 6마디 'easier'를 끝마치면서 마치 '하~' 하는 소리와 함께 남은 숨을 빠르게 내보내고 있다. 'to make it easier'라는 짧은 프레이즈를 연주한 이후 몸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짧게 뱉듯이 처리하고 빠르게 들숨으로 연결하는 그녀의 이러한 호흡처리는 마치 숨 쉬는 소리까지도 멜로디의 일부로 들리듯 만드는 중요한 표현기법 중 하나이다.

도입부는 무엇보다도 보컬리스트가 안정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되기 때문에 A 8마디와 A' 6마디는 조금 차별화해서 톤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A에서는 다소 breathy 한 목소리로 노래하다가 A'에서는 호흡을 섞는 양을 줄여서 밀도 높은 진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입부내에서의 다이내믹 표현에 적당할 것이다.

2.2 전개부 Traditional Bridge B

The image shows three lines of musical notation for the Traditional Bridge B section. Each line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sharps (F# and C#). The first line has lyrics: "I de cided long - a go - ne ver to walk - in a - ny one's shaw dow". The second line has lyrics: "If I fail - if I succeed - at least I live - as I - beli eve No". The third line has lyrics: "matt 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 way my dig - ni - ty". Above each line, chord symbols are indicated: D, A/C#, Bm7, and E7.

전개부의 멜로디는 2마디 단위로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된다. D - A - Bm - E7 의 똑같은 코드 진행이 3번 반복되고 있고 멜로디는 가사에 맞춰지다보니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흡사하게 반복되며 진행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A4이며 이 음을 중심으로 '시-도-레-미' 로만 움직인다. 그러므로 일정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의 다양함을 위해 중간 중간에 톤의 변화를 준다 해도 전개부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톤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와 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또한 2마디, 4마디, 6마디에 세 번 나오는 C#5를 소리 낼 때는 긴장해서 후두가 올라가고 목을 좁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any'를 발음할 때 자음을 연음시키지 않고 'a' 발음을 성대를 닫았다가 강하게 때리듯이(Hard Attack) 소리내는 경우가 많

다. 그런 방법의 고음발성은 성대를 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앞 음절 'in' 과 'any' 를 연음하여 [인애니]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니]로 발음하는 것이 좋으며 5마디의 'as I' 역시 [애즈 아이] 보다는 [애자이]로 연음하여 발음하도록 한다.

전개부의 멜로디 역시 도입부와 비슷하게 16분음표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멜로디의 강약 조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1마디 4박의 'ag-o', 2마디 3박의 'in an-y', 3마디의 'fail', 'succ-eed', 4마디의 'live', 'I' 등 1/4박자씩 강박을 당겨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조심할 부분은 이 곡의 반주는 대체로 4비트로 연주될 것이므로 16분음표로 쪼개서 강세를 조절하는 미세한 표현은 오로지 가수의 몫이라는 것이다.

1 - 4마디와는 달리 5마디에서는 8분음표로 멜로디가 바뀐다. 이 부분에서는 마치 가사 한 음절, 한 음절을 강조하듯이 테누토로 연주해야 한다. 그래서 5 - 6마디에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가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다이내믹을 완성한다. 그리고 3마디의 'If I fail' 에서도 브레이크기법(논레가토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간혹 학생들 중에 Whitney Houston을 모창하듯 노래하면서 목을 심하게 굽으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음발성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2.3 후렴 Chorus C

후렴부의 14마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일정한 코드가 반복 진행하고 전조하여 다시 일정한 코드가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이다.

C#m - F#m - Bm - E7 - A
 III m VI m II m V7 I
 F#m - Bm - Em - A7 - D
 III m VI m II m V7 I

코드의 진행과 전조에 따라 멜로디도 똑같이 전조되어 연주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7마디에 비해 후반부 7마디가 고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먼저 후렴의 처음부분 'Because the' 3음절은 테누토로 연주한다. 바로 이어지는 멜로디 'grea-test' 에



서는 급격히 F#4에서 A3로 하강하는 부분이 나온다. 동일한 하강라인은 이후 3번 5마디와 8마디, 12마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데 이 부분에서 목에 과도한 힘을 빼고 호흡을 적절히 섞어가며 부드럽게 소리를 내야하며 목이나 턱에 과도한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급격히 도약하는 멜로디 라인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2마디의 'is'와 7마디의 'the' 그리고 9마디의 'is'에서는 목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자연스럽게 성대의 위상(位狀)을 바꾸어서 두성(head voice)을 내도록 하는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7마디와 9마디의 도약부분에서 'the'와 'is'보다는 그 뒤에 위치한 'grea-'와 'ea-'음절이 강박이 되어야하는 멜로디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급격한 도약으로 인해 'the'와 'is'에 자연스럽게 강세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뒤에 있는 'grea-'와 'ea-'를 약박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다시 '강-약-강-약'의 질서를 회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횡경막을 컨트롤하는 복근의 압력을 이용하여 썸머림의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비슷한 고음이지만 11마디의 'learn-' 음절은 앞에서의 고음부분과는 달리 crescendo 의 느낌이 잘 표현되도록 소리를 내면서 '약'에서 시작하여 '강'으로 전개되어 '-ing' 음절이 강박이 되도록 노래 불러야 한다.

이 곡의 후렴부에서는 하강과 도약이 반복되며 노래하여야 하므로, 성대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전반부 7마디의 멜로디와 후반부 7마디의 멜로디가 완전 4도 전조되어 연주해야하므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chest voice 와 head voice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곡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레가토 기법과 논 레가토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며 소리를 힘있게 내다가 갑자기 소리를 작게 내기 위한 힘 조절과 안정적인 톤 조절에 중점을 뒤야한다. 그러게 마무리를 해주면 다시 Verse2 로 돌아갈 때 편안하게 연결되어 노래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대중음악에서 좋은 가창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범답안을 찾기엔 쉽지 않다. 성악이나 판소리에서의 전통과 권위보다는 대중음악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과 다양한 장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좋은 가창이라는 정형화 된 틀을 만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팝이나 가요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수들의 가창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팝 가창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체계화의 작업과 노력들을 통해 실용음악 보컬 분야의 바람직한 가창법을 정착시키는 일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숙제이다.

참고문헌

- [1] 편집부, “과플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2] 이성천, “음악통론과 실습”, 음악예술사, 2001
- [3] 오한승, “그대 내게 다시’의 가창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 [4] Anne Peckham, “The Contemporary Singer”, Berklee Press, 2000